

프로 데뷔 16년 만에 꽃 피운 '우승 포수'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5> 포수 김태군

“큰 계약을 했기에 올 시즌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있었다. 우승 포수가 됐기에 나를 향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김태군이 KIA타이거즈에서 야구 인생 2막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만에 '만년 백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우승 포수'로 거듭나며 180도 다른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이다.

2008년 LG트윈스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태군은 지난해 7월 류지혁과 맞트레이드로 삼성라이온즈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뒤 65경기에 나서 타율 0.258로 24타점과 17득점을 기록했다. 시즌을 통틀어서는 114경기에서 타율 0.257로 42타점과 24득점을 생산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기를 가졌고,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모습이였다.

심재학 단장은 그의 가치에 믿음을 보내며 지난 시즌 막바지 연봉 20억원과 옵션 5억원 등 총액 25억원의 화려한 조건을 안기며 구단 최초의 비FA 다년 계약 타이틀을 달아줬다.

일각에서 몸값 거품 논란이 있었지만 김태군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계약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베테랑으로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장서 새 시즌에는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김태군은 올 시즌 그 약속을 지켰다. 올해 105경기에 나서 타율 0.264로

비FA 다년 계약 후 맹활약 펼쳐 안방 강화 및 후배 양성 등 역할 20시즌 백업서 24시즌 주전으로 "나를 향한 인식부터 달라질 것"

34타점과 24득점을 기록했다. 단순한 기록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난해 KIA 이적 후 -0.21에 그쳤던 대체 수준 대비 승리 기여도(WAR·스탯티즈 기준)를 1.13까지 끌어올렸다.

후배들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시즌 후반기 전력에 가세하며 가능성을 보였던 한준수는 올 시즌 115경기에서 타율 0.307로 41타점과 39득점을 생산하며 성장했다. 한준수는 프리미어12 출전이 좌절됐으나 팀 코리아 훈련 소집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KIA를 넘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포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구위 저하와 제구 난조 속에 눈물을 흘렸던 정해영은 세이브왕과 헝가레 투수로 거듭났다. 김도현과 황동하, 광도규, 김기훈 등 젊은 피들도 그의 리드 속에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김태군이 영향력을 미친 포지션은 포수와 투수뿐만이 아니었다. 내야수 김도영과 박찬호 등도 쓴소리의 타깃이었다. 수비 실책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자 고개 숙이지 말라고 혼냈다. 물론 선배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다. 양현종이 힘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운드에 올라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KIA타이거즈 김태군이 지난달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승윤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우승을 확정 지은 뒤 정해영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그럼에도 김태군을 모두가 따랐던 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밑바탕이 됐고,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에 몰두했다.

그의 노력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 포수라는 꽃으로 만개했다. NC 소속이던 2020년 양의지의 백업으로 한국시리즈에 나섰던 김태군은 이번에는 다섯 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포수 마스크를 썼고, KIA가 패배한 3차전을 제외하고 모두 풀타임으로 안방을 지켰다. 우승을 확정 짓는 정해

영의 헛스윙 삼진 공을 받아낸 포수 역시 김태군이였다.

특히 공격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며 수비형 포수라는 설움까지 완벽히 털어냈다. 김태군은 4차전에서 만루 홈런을 때려내며 시리즈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왔고, 5차전에서는 결승타를 때렸다. 다섯 경기에서 타율은 0.353에 이르렀다. 주전으로는 단 한 번도 3할 타율을 기록한 적 없었던 그가 큰 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김태군은 우승을 확정 지은 뒤 “올해는

큰 계약을 맺었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공존했다”며 “경찰 야구단에 다녀온 뒤로 찬밥 신세였는데 우승 포수라는 타이틀을 얻었기에 저를 향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KIA에 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우리 팀이 충분히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음이집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우승이라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되새기며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KIA 정해영·최지민·광도규·김도영·최원준 프리미어12 간다... 팀 코리아 최종 명단 확정

전상현·한준수는 합류 무산

KIA타이거즈 투수 정해영, 최지민, 광도규와 내야수 김도영, 외야수 최원준이 팀 코리아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프리미어12에 나서게 됐다. 투수 전상현과 포수 한준수는 합류가 무산되며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KBO 전력강화위원회와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가 확정된 2024 WBSC(세계 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에 참가할 팀 코리아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 엔트리에는 투수 14명과 타자 14명 등 총 28명이 승선했으며 지난달 24일 소집 훈련을 시작해 지난 6일 상무 피닉스와 연습경기까지 선수들의 경기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꾸려졌다.

올 시즌 챔피언인 KIA에서는 투수 정해영, 최지민, 광도규와 내야수 김도영, 외야수 최원준이 이름을 올렸다. 최지민은 예비 명단에서는 제외됐으나 개막 직전까지 엔트리 교체 가능한 이번 대회

규정에 따라 소집 훈련에 발탁됐고, 프리미어12까지 나서게 됐다.

또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 출전했던 투수 광빈과 최승용(이상 두산), 투수 조병현(SSG), 내야수 나승엽, 외야수 윤동희(이상 롯데), 포수 김형준, 내야수 김휘집, 김주원(이상 NC) 등 미래 자원들도 발탁됐다.

KIA의 우승 공신으로 맹활약하며 생애 첫 국가대표팀 승선을 노렸던 투수 전상현과 포수 한준수는 최종 엔트리를 추리는 과정에서 합류가 무산되며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투수 엄상백(KT)과 김시훈(NC), 조민석(상무), 내야수 김영웅(삼성)도 낙마했다.

한편 팀 코리아는 8일 결전지인 대만 타이베이로 출국해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한다. B조에 속한 한국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만과 쿠바,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호주를 상대로 조별리그를 치른 뒤 2위 이상을 기록할 경우 21일부터 일본 도쿄로 무대를 옮겨 슈퍼 라운드에서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한규빈 기자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 성료

김도 등 4종목 60여명 참가

전남도와 서울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서울에서 만나 우정을 나눴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5-7일 서울 일원에서 2024년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 행사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종목별 교류와 체육·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시·도 협력체계 구축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 협력관계를 체결한 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순천에서 열린 제35회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했던 서울시 선수단은 올해 전남도 선수단을 서울로 초청했다. 이번 교류 행사에서는 6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검도와 수영, 농구, 족구 등 총 4개 종목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다.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교육

광주시체육회는 8일 광주시체육회관 1층 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과학원이 주관하는 '2024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교육'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광주시체육회가 '2024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운영



2024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에 참가한 전남 생활체육교류 선수단이 지난 5일 서울시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환영행사를 갖고 우의를 다지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체육행사 외에도 대학로 연극 관람과 서울종합운동장·롯데월드타워 일대를 견학하는 문화체험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서울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내년에는 영광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지도자 양성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현장에서 필요한 스포츠과학 이론과 실기가 결합된 실무 중심형 스포츠과학 교육 지원으로 이뤄진다.

국내 최고의 스포츠 과학 전문가가 이날 광주를 찾아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도자, 체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수 트레이닝 이론과 실습 △체력 트레이닝 △컨디셔닝 이론 및 실습 등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최동환 기자